

국어사 교육을 위한 중세국어 자료 탐색

양영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 I. 머리말
- II. 중세국어 자료 탐색
- III. 맺음말

I. 머리말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 유무가 논쟁인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문법 교육의 학습 내용 가운데 하나로 자리 매김하였다. 다만 교육 목표에 변화를 시도한바, 「2012 교육과정」까지는 「국어」, 「독서와 문법」이 모두 고대·중세·근대국어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2015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과목의 경우 ‘언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임을 깨닫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으로써 단순히 국어사적 지식을 이해(축적)하기보다 그것을 매개로 하여 국(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하였다.¹⁾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만을 비교하도록 점(국어),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교육 내용으로 선택한 점(언어와 매체), 단순 설명이나 기술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당대 언어의 특성을 탐구하도록 한 점(국어, 언어와 매체) 등이 변화의 중심 내용

-
- 1) 바로 다음 장에서 살펴겠지만 「언어와 매체」는 교육 대상(시기)을 고대부터 근대국어까지로 설정하였다. 공통 과목인 「국어」에서 생략한 고대국어와 근대국어의 지식을 선택 과목에서 심화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변화는 일찌지는데, 각 시기의 언어 특성을 일일이 학습하기보다 변화 양상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 점이 그것이다.

으로 간주된다.²⁾

본고는 이러한 변화를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의 실마리를 중세국어 자료 탐색에서 찾자 한다. 위에서 살핀 대로라면 현대국어와 비교되는 중세국어 자료를 가능한 많이 탐색·선정하는 것이 변화된 국어사 교육의 취지를 제고(提高)하는데 관건으로 작용하리라는 판단에서이다.

국어사 교육에서의 자료 선정과 그것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는 이승희(2012), 김유범(2007, 2013), 이규범(2019) 등에서 논의되었다. 특히 이규범(2019)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자료 제시 양상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에서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비교를 중요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1편당 수록된 국어사 자료는 2.64편에 불과”함을 문제시하면서 앞으로 “국어사 교육에 활용하기 용이한 국어사 자료의 발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본고도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중세국어 자료 탐색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미력하게나마 향후 교과서 개발 및 현장 교사의 교수·학습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 2) 이상과 같은 국어사 교육의 변화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각 시기의 국어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국어사 교육의 목표를 두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면이 없지 않을 터이고 국어사 교육의 무용론을 견지하는 입장에서는 발전적인 대안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비교만으로는 국어의 역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고 후자는 국어사 교육이 단순히 시기별 국어의 특징을 이해하는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학습자에게 국어 역사성을 이해하도록 하여 언어의 특성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을 갖게 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었던 국어사 교육의 무용론을 조금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다는 위안일 것이다.

II. 중세국어 자료 탐색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의 근간인 「2015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국어사 교육의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어」: 공통과목

가.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10국04-01])

나. 이 성취기준은 구체적인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 활동을 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되, 한글 창제 후의 중세국어 자료와 현대국어 자료를 비교하며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성취기준 해설)

다. 국어의 변화를 지도할 때에는 국어사의 세부 사항을 학습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자료를 활용하며, 시기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로 한정하여 학습 부담을 줄여주도록 한다. ‘훈민정음 언해본’처럼 널리 알려진 자료를 활용하되, 현대국어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변화의 양상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2) 「언어와 매체」: 선택과목

가.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12언매02-08])

나. 이 성취기준은 국어의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에 대한 이해 수준을 심화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서 설정하였다. 차차 포기 자료로 남아 있는 고대국어, 한글 창제 이후의 중세국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 중에서 내용이나 표현이 쉽고, 짧으며,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되, 상세한 국어사 지식보다는 개략적인 어휘의 변화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성취기준 해설)

연구자가 강조한 위의 내용에서 살펴지듯이 「국어」는 중세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로서의 언어 본질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었지만 「언어와 매체」는 고대국어부터 현대국어까지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설명이나 기술이 아닌 ‘자료’로써 탐구하도록 한 교육 방법은 일치한다. 요컨대 언어의 변화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라는 의미인데, 「언어와 매체」에서는 특별히 자료 선택의 조건을 ‘내용이나 표현이 쉽고, 짧으며,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문면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조건은 「국어」의 자료 선택에도 적용될 것이다.

1. 교과서 자료 제시 현황

위와 같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선정된 교과서의 자료 제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³⁾

(3) 「국어」의 중세국어 자료

- 가. 『세종어제 훈민정음』(10종 교과서)
- 나. 『용비어천가』(신사고 외 5종)
- 다. 『소학언해』(비상: 박안수)
- 라. 『이응태 묘 출토 간찰』(천재: 박영목, 금성)

(4) 「언어와 매체」

- 가. 『세종어제 훈민정음』(천재/창비)
- 나. 『용비어천가』(미래엔)
- 다. 『월인석보』 1, (창비)

3) 분석 대상은 「국어」 10종과 「언어와 매체」 5종으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자료 현황은 이규범(2019)을 참조하기 바란다.

- 라. 『삼강행실도』(비상)
- 마. 『번역노걸대』 하(비상)
- 바. 『석보상절』 6, 21~22(지학사)
- 사. 『번역박통사』(창비)
- 아. 『구급간이방』(창비)

교과서의 본문과 활동에 제시된 위의 자료는 국(언)어의 변화적 속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최선의 대상으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국어」에 비하여 「언어와 매체」에서 자료를 많이 활용한 것은 ‘자료’를 중시한 성취기준(2. 가)에 방점을 둔 결과로 해석된다. 여하튼 이러한 자료 가운데에는 단순히 중세국어 문헌을 소개하는 참고 자료 차원에서 ‘사진’ 형태로 활용된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용비어천가』와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연구자가 살핀 모든 교과서에서 중세국어 특징을 설명하는 본문 자료로 제시되었다. 이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를 개략적’으로 이해하되 『훈민정음 언해본』처럼 널리 알려진 자료를 사용하고, ‘내용이나 표현이 쉽고, 짧으며,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로 선정하기를 권장한 「국어과 교육과정」의 취지를 적극 수용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읽혀진다.

이외의 『소학언해』, 『월인석보』 등도 이런 태도를 견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학언해』, 『삼강행실도』는 ‘충·효·열·우애’ 등에 대한 일화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문헌으로 일화 당 차지하는 분량이 적고 인물 중심의 이야기 구성이어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월인석보』, 『석보상절』은 『법화경 언해』, 『능엄경 언해』 등과 같은 전문 불교 경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석가모니 일대기를 사건 중심으로 엮은 일종의 위인전 형식이어서 그나마 내용이 쉽고 학습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선택된 듯하다. 『이응태 묘 출토 간찰』과 『구급간이방』도 마찬가지이다. 전자는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적은 만사(輓詞) 형식의 편지로 일단 텍스트가 짧으며 젊은 나이에 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절절한 그리

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학습자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고 후자는 127종의 질병에 대한 처방을 기술해 놓은 것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짧은 내용으로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상을 참조할 때 현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는 교육과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자료를 선택한 후에는 다음에서 확인되듯이 해당 장면의 중세국어 특징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5) 『국어』(신사고)⁴⁾

世·세宗중御·영製·정 訓·훈民民正·정音음
나·랏·말쑈·미 中·國·국·에 달·아 文·문·字·쥬·와·로 서르 스몓·디 아·
니·힐·썩·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저·홍·배이·
셔·도 只·쑈·내 제·쓰·들 시·러 퍼·디·못·홍·노·미 하·니·라·내·이·
를 爲·윙·헝·야·어엿·비 너·겨·새·로·스·물여·듸 字·쥬·를 밍·그
노·니·사름·마·다·히·여·수·비 니·겨·날·로·뿌·매 便·뵤·안한·키 헝·
고·저 홍 썩르·미니·라

<현대 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
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
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
름이다.

(1) 다음 중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음운을 모두 찾아보자.(스몓, 수비)
(2)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음운상 차이점을 말해보자.(뽏: 뽏/뽏: 씸)

4) 어떤 의도나 의미 없이 교과서를 선택하였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 역시 해
당 교과서가 아닌 모든 교과서의 것임도 밝혀 둔다.

- (3)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분절 음운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자.(말씀: 말씀)
- (4)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상 차이점을 탐구해보자.(말씀미: 말씀미)
- (5) 다음에서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보자.(어리석은: 나이가 적음/사람이: 놈[남자의 비칭]/ 불쌍하게, 가없게: 예쁘게)
- (6)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주격 조사의 차이점을 탐구해보자.(百·백姓: 성·이 → 백성이/·배 → 바가)
- (7)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명사형 어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뿌메: 썸메)

보다시피 해당 지면에서 확인되는 중세국어의 특징을 현대국어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탐구하도록 하였다. 앞의 (1)에서 살폈던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를 개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 성취기준(1. 가~다)을 충실히 수용한 결과로 읽혀진다.

2. 자료 선택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교육과정」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자료 선택과 제시 양상은 당연한 귀결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연구자는 현 교과서에 활용된 (3, 4)의 자료 이외에 다음의 문헌을 주목하고자 한다.

- (6) 가. 『훈민정음 해례본』의 ‘용자례’
 나. 『석보상절』 6, 4ㄴ~7ㄴ
 다. 『월인석보』 1, 9ㄴ~10ㄴ
 라. 『순천김씨묘출토 간찰』 3

『석보상절』, 『번역노걸대』, 『월인석보』는 교과서에서 이미 소개한 문헌이지만 그와 다른 장면을 제시하고자 하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어사 교육은 ‘자료’를 통해서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깨닫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관찰할 수 있는 문헌의 특정 장면을 많이 찾아내서 현장 교사와 향후 교과서 집필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학계의 역할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둘째, 현재와 관점을 달리 하여 ‘변화하는 언어의 속성’을 이해해 보자는 것이다. 현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택한 후, 1~2페이지 정도를 본문에 제시하여 거기에서 파악되는 중세국어의 모든 특징들을 설명 혹은 탐구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교과서 제작의 특성상, 한 단원에 할당된 지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로, 한정된 자료로써 폭넓은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순 비교 차원의 피상적인 변화만을 이해할 우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대국어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언어 현상(기능)에 초점을 맞춰 그것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깨닫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습자들이 ‘변화’를 구체적으로 실감하리라는 생각에서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선택된 장면에서도 중세국어의 표기와 음운, 의미 변화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터이고, 다루고자 하는 언어 현상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는 대신 현대국어와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상세한 국어 지식에 대한 이해가 아닌 개략적’으로 학습하도록 한, 현 국어사 교육의 교수·학습법에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선택한 자료가 (6. 나, 다)인바, (나)로써는 현대국어와 다른 청자높임법의 변화를 파악하고 (다)로써는 의문법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⁵⁾

5) 다만 해당 자료의 분량이 많은 경우 교과서 지면의 제약이 문제될 수 있지만 본 논의는 국

1) 『훈민정음 해례본』 ‘용자례’

『훈민정음 언해본』은 (3)에서 살폈듯이 현재 모든 교과서에 수록된 자료이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서도 그러하겠지만 그것이 지니는 국어사적 의의나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라면 『훈민정음 해례본』도 자료로 활용할 법하지만, 간혹 언해본과의 관련성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참고로 활용되는 정도이다. 중학교 교과서에 설명된 ‘상형, 가획’ 등과 같은 제자 원리나 ‘소리의 청탁’에 대한 설명은 언해본이 아닌 해례본에 존재하므로 이 문헌의 가치 또한 언해본에 뒤떨어지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사 성취기준에서 언해본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이유는 해례본은 전부 한문으로 구성되어서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현재 교과서 구성 방식처럼 해당 장면을 현대어로 풀이해 주면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해소된다.⁶⁾

(7) 『훈민정음 해례본』 ‘용자례’ 일부

〈用字例〉

初聲 ㄱ如 𣎵爲 柿· ㄴ爲 盧. ㅋ如 未稻· ㆁ爲 大豆. ㅇ如 𣎵· ㅍ爲 獺· ㅅ如 爲 流漸. ㅈ如 𣎵爲 茅· ㅊ爲 牆. ㅌ如 高· ㅍ爲 藹· ㅍ爲 蟾蜍. ㄴ如 𣎵爲 獐· ㅅ爲 猿. ㅈ如 𣎵爲 臂· ㅈ爲 蜂. ㅍ如 𣎵爲 蕙· ㅍ爲 蠅. ㅍ如 𣎵爲 山· ㅍ爲 薯蕷. ㅍ如 𣎵· ㅍ爲 蝦. ㅍ· ㅍ爲 瓠. ㅍ如 𣎵· ㅍ爲 尺· ㅍ· ㅍ爲 紙. ㅍ如 𣎵爲 簾· ㅍ爲 鞭. ㅍ如 𣎵爲 手· ㅍ爲 島. ㅍ如 𣎵· ㅍ爲 鶻鵠· ㅍ爲 筋. ㅍ如 𣎵· ㅍ爲 雞雛· ㅍ爲 蛇. ㅍ如 𣎵· ㅍ爲 蠅· ㅍ· ㅍ爲 水. ㅍ如 𣎵· ㅍ爲 弟· ㅍ爲

어사 교육에 적합한 가능한 많은 자료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일단 이러한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 6) 용자례의 국어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양영희(2020)을 참조하기 바란다. 본 논의를 통해서 용자례의 교육적 가치가 인정될지라도 단위 구성의 페이지 제약 등으로 본문에 실기 어렵다면 활동과 같은 2차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鵲。中聲。如。𪛗爲願。𪛗爲小豆。ㄷ리爲橋。ㄹ래爲楸 一。如。물爲水。·발·측
爲跟。·그력爲雁。드·레爲汲器

[현대어 풀이]

초성의 ‘ㄱ’은 [감]을 뜻하는 ‘감’, [갈대]를 뜻하는 ‘갈’과 같다. ‘ㅋ’은 [짚기
위하여 말린 벼]를 뜻하는 ‘우케’, [콩]을 뜻하는 ‘콩’과 같다. ‘ㅇ’은 [수달]을
뜻하는 ‘러울’과 [얼음이 녹은 물]을 뜻하는 ‘서예’와 같다.

주지하듯이 용자례는 창제한 28자모에 해당하는 초성·중성·종성의 고
유어를 92개 정도로 예시한 부분이다. 위의 (7)은 연구자가 그 일부를 제시
하여 현대어로 풀이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
가 인정된다. 첫째, 『훈민정음』에 대한 폭 넓은 이해이다. 학습자들은 일반적
으로 『훈민정음 언해본』의 극히 일부만을 『훈민정음』으로 간주하거나 『해례
본』의 존재를 인식하더라도 『언해본』의 ‘한문본’ 정도로 이해할 가능성이 많
은데, 이처럼 고유어가 수록된 일부를 활용함으로써 그것의 가치와 존재를
분명히 인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⁷⁾ 즉 그들은 창제 동기 등이 서술된
『훈민정음 언해본』 이외에도 『훈민정음 해례본』을 인지하게 되고, 그것의 내
용 및 구성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훈민정음』에 대
한 이해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둘째, 순수 고유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어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학습자일지라도 ‘가시버시, 다숨, 모꼬
지, 슈룹’ 등과 같은 고유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여 신선함을 느끼려는 경
향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용자례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면 학습자들은 거

7) 사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소리의 성질(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에 대한 설명은 『훈
민정음 언해본』이 아닌 『훈민정음 해례본』에 존재한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훈민정음
언해본』만을 자료로 활용하여서 여기에 이러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학습자도 적
지 않을 듯하다.

기서 익힌 고유어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국어사 자료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다음과 같이 어휘 교육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위 장면에 제시된 단어들을 유형화 하면 다음과 같다.

(8) 용자레의 어휘와 조어법

가. 소멸한 고유어: 우케(짚기 위하여 말린 벼) / 러울(수달) / 뒤(여러 해 살이 풀) / 낚(원숭이) / 드비(표주박) / 비육(병아리) / 무뤼(우박) / 너시(기러기) / 파의 새) / 뫼(산) / 유시(얼음이 녹은 물)

나. 형태 변화: 고티 > 고치 / 노로 > 노루 / 불 > 팔 / 발촉 > 발꿈치 / 죠히 > 종 이 / 밋얌 > 뱀 / 아스 > 아우 / 서에 > 성에 / 사뵈 > 새우 / 섬 > 섬 / 드레 > 두레

다. 조어법: 풀 > 파리 / 부형 > 부형이 / 그럭 > 기러기

이로 볼 때, 용자레로써는 학습자들에게 ‘끊임없이 소멸되고 새로 만들어진 단어 생성의 과정(8. 가)’을 확인시킴으로써 의미는 그대로이지만 형태가 변하기도 하는(8. 나) 어휘 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표기와 음운의 변화는 물론이고 중세국어 조어법 특징을 탐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가령 당시에는 ‘부형, 그럭, 풀’ 등이 바로 명사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접미사 ‘이’를 연결하여 현대국어에서 ‘파리, 부형이, 기러기’ 등의 형태로 굳어졌음을 확인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와 같은 파생법에 대한 이해는 ‘용자레’에서 확인되지 않은, 어간과 어간을 바로 결합하여 ‘죽살다, 똥긋다, 섯듣다, ㄴ슛다’ 등과 같은 단어를 만들었던 중세국어 합성법과 어간에 부동사 어미 ‘아/어’를 연결하여 ‘빌어먹다, 뛰어나다’ 등으로 변화된 현대국어 합성법을 비교하는 활동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학습자에게 언어 변화가 비단 (8)과 같은 어휘 차원에 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만드는 방법과 같은 측면에서도 이루어

어지는 광범위한 현상임을 이해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2) 『석보상절 6』 4ㄴ~7ㄱ/『월인석보』 1/『순천김씨 묘 출토 간찰』

다음으로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자료는 『석보상절 6』의 4면 후장(4ㄴ)에서부터 7면의 전장(7ㄱ), 『월인석보』 9면의 후장부터 10면의 후장, 『순천김씨 묘 출토 간찰』이다. 주지하듯이 청자높임의 다양한 방법과 분화는 국어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만큼 국어학은 물론이고 국어 교육에서도 간과하기 어려운 기능 가운데 하나이지만, ‘변화’의 언어적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현재의 국어사 교육 관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청자높임법은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이르는 동안 적지 않은 변화를 거쳤으므로 두 시기의 자료를 비교하면 언어의 변화적 속성을 명료하게 이해할 것으로 추정되는 까닭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교할 청자높임법은 ‘호쇼셔: 하십시오 / 햐아썸(ㄴ): 하게 / 햐라: 해라’체로,⁸⁾ 먼저 다음 (9)에서 소개한 장면이 참조된다.⁹⁾ 청자 높임법은 화자와 청자의 대화에서 사용되는 문법 장치인 만큼 다양한 관계(신분, 나이)의 인물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많을수록 좋은 자료로 평가할 만하다. 그래야 청자높임의 다양한 형태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8) 주지하듯이 청자높임법은 중세국어의 ‘호쇼셔, 햐아썸(ㄴ), 햐라(니)’의 3등급에서 ‘호십시오, 하오, 해요, 하게, 해, 하라’의 6등급으로 분화하였다(양영희, 2009 ㄱ). 그런데 여기서는 비교대상에서 근대국어로 처음 사용된 ‘하오’체를 제외하기로 한다.

9) 지학사에 소개된 『석보상절』 6, 21~22’의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는 ‘호쇼셔’체와 ‘햐라’체만을 확인할 수 있다.

須達이 부터의 슬보디 “如來하 우리나라해 오샤 衆生의 邪曲을 덜에 호쇼셔.”
世尊이 니르샤디 “출가한 사르민 쇼히 곤디 아니하니 그에 정사ㅣ 업거니 어드리 가료.”
須達이 슬보디 “내 어루 이르스보리이다.”

(9) 『석보상절 6』 (4ㄴ~7): ‘호쇼셔, 호야썤, 호라’체

[호미장자: 바라문= 호라: 호쇼셔]

護彌長子 | 나·아·오나·닐·婆羅門·이 안·否·문·고·닐·오·되·舍衛國·
에·호·大臣·須達·이·라·호·리·잇·느·니·아·락·시·느·니·잇·가·護彌·닐·오·
되·소·리·썤·들·노·라·婆羅門·이·닐·오·되·舍衛國中·에·못·벼·술·놓·고·
가·스·며·루·미·이·나·라·해·그·되·ᄃᆞᆫ·니·호·스·랑·호·는·아·기·아·
득·리·양·직·며·직·죄·호·그·티·니·그·뵈·ᄃᆞᆫ·를·맞·고·저·호·다·이다·
護彌·닐·오·되·그·리·호·라·라

[현대어 풀이]

호미 장자가 나오니 바라문이 안부를 묻고 말하기를 “사위국에 대신 수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십니까?” 호미가 말하기를 “소문으로만 들었다.” 바라문이 말하기를 “사위에서 가장 벼슬이 높고 (재산의) 풍요로움이 이 나라의 당신과 같고, 그가 사랑하는 막내아들이 모습과 재주가 매우 뛰어나는데, 당신의 딸을 (며느리로) 맞고자 합니다.” 호미가 말하기를 “그리하겠다.”

<장면 2>

[수달장자: 호미장자=호야썤]

須達·이·護彌·되·려·무·로·되·主人·이·므·슴·차·바·닐·손·소·되·너·
밍·ᄃᆞᆫ·노·닛·가·太子·를·請·호·스·바·이·반·조·보·려·호·노·닛·가·大臣·
을·請·호·야·이·바·도·려·호·노·닛·가·護彌·닐·오·되·|·그·리·아·닝·다·
須達·이·썤·무·로·되·婚姻·위·호·야·아·스·미·오나·든·이·바·도·려·
호·노·닛·가·護彌·닐·오·되·그·리·아·니·라·부·터·와·:중·과·를·請·호·스·
보·려·호·닝·다·須達·이·부·터·와·:중·곳·마·를·들·고·소·홈·도·터·自·
然·히·ᄃᆞᆫ·매·ᄃᆞᆫ·ᄃᆞᆫ·디·이·실·썤·다·시·무·로·되·엇·데·부·테·라·
호·노·닛·가·그·ᄃᆞᆫ·들·닐·어·썤

[현대어 풀이]

수달이 호미에게 묻기를 “주인(호미)이 무엇 때문에 음식을 손수 다니면서 만드시오? 태자를 초청해서 대접하려고 하오? 대신들 초청해서 대접하려고 하오?” 호미가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오.” 수달이 또 묻기를 “혼인을 위하여 친척들이 오거든 대접하려 하오?” 호미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라, 부처와 중을 초청하려 하오.” 수달이 ‘부처’와 ‘중’이라는 말을 듣고 소름이 돋고 자연히 기쁜 뜻이 일어나서 다시 묻기를 “어찌 부처라 부르오? 그 뜻을 말해보오.

〈장면 1〉은 평소 수달을 모시고 있는 바라문(승려)이 수달의 부탁으로 막내며느리 감을 구하고자 여러 나라를 다니다가 호미의 딸로 결정하고서, 호미에게 수달을 소개하면서 나누는 대화이다. 여기서 바라문이 호미에게 ‘ᄃᆞᆫ쇼셔’체로 묻고(의문형) 답(평서형)하며, 호미는 바라문에게 ‘ᄃᆞᆫ라’체로 답하고 있다. 〈장면 2〉는 〈장면 1〉에 이어지는 담화이다. 바라문의 중매로 드디어 수달의 아들과 호미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 수달이 호미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호미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을 보고 수달이 그에게 이유를 묻고 호미가 답하는 대화로 이들은 서로 ‘ᄃᆞᆫ쇼셔’체와 ‘ᄃᆞᆫ라’체의 중간 등급으로 간주되는 소위 ‘ᄃᆞᆫ야썤’를 사용하고 있다(의문형: -닛가, 평서형: 낟다/썤다, 명령형: -어썤).

무엇보다 이야기라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만한 자료로 평가된다. 교사가 위의 대화 장면을 포함한 전체 줄거리와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면 위처럼 짧은 자료로만으로도 중세국어 청자 높임법의 모든 등급과 기능을 충분히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등급을 현대국어의 그것과 비교하도록 하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언어의 속성 또한 이해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표기 변화는 물론이고 ‘ᄃᆞᆫ(장면 1), 이반다, 아스미, 깃브다(장면 2)’로써 어휘와 음운 변화를 파악할 수도 있으며 ‘습’의 연결 여부

연구자가의 공부가 깊지 않은 탓이 크겠지만 그동안 중세국어 문헌을 대하면서 위처럼 짧은 담화에서 다양한 청자높임법의 유형과 객체높임법의 활용 여부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장면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바, 이 점이 바로 본 논의에서 주목한 이유이다. 다음의 『월인석보 1』은 중세국어의 또 다른 높임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선혜가 (이 말을) 들으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여 꽃이 있는 곳을 따라 가다가

구이를 만났다. (그녀)가 일곱 줄기 꽃을 가지고 있었으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병 속에 (꽃을) 감추어 두었는데, 선혜의 (부처에 대한 마음이) 지극하여 그 꽃이 병 속에서 솟아나왔다. 선혜가 (이 광경을 보고 구이를) 불러 “사고 싶다”고 하자 구이가 말하기를 “대궐(왕)에 보내어 부처에게 공양할 꽃이라 그렇게 못 하리라” 하였다. 선혜가 또 말하기를 “오백 은돈으로 다섯 줄기를 사고 싶다”고 하니 구이가 다시 묻기를 “무엇에 쓰시리” 하니 선혜가 대답하기를 “부처께 드리고자 한다” 하니 구이가 또 묻기를 “부처께 드려서 무엇 하려 하시니”

여기에서는 현대국어의 반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니’체가 확인된다. 선혜와 구이는 석가모니와 그의 아내 야수다라의 전생 인물들로, 위는 이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다. 선혜가 구이에게 꽃을 사기 위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밀줄 친 부분의 ‘-니’체를 사용하였다. 이들이 동갑내기이면서 신분이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니’체가 반말일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중세국어의 반말체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청자높임의 등급을 설명한 천재(민현식 외)의 『언어와 매체』(2012)에서는 ‘니’체를 반말로 규정하였다.¹⁰⁾ ‘국어사의 상세한 지식’보다 ‘개략적인 어휘’ 파악에 더 중점을 두는 현 국어사 교육의 관점에서는 굳이 이처럼 이견이 존재하는 언어 형식까지를 국어사 교육 내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연구자는 오히려 이러한 이유에서 해당 장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문법의 특성을 고려하면 ‘표준’화 되지 않은 입장을 교육 내용으로 삼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15세기 중세 문헌에서 ‘-니/리(의문형), -고라/ 고려(명령형)’ 등이 발견되는 점 등을 참조할 때 일단 이러한 형식을 사용되었던 말씨로 간주하고서(구본관·박재연·이선웅, 2016; 고영근, 2020), 학습자들에게 해당 기능을 알려주는 것도 나름대로 의

10) 다른 교과서는 청자높임법에 관여하는 형태소 ‘이’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미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성취기준에 기술된 ‘개략적인 이해’가 당시에 사용되었던 언어 기능을 ‘도외시’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위의 장면을 앞서 살핀 『석보상절』과 함께 자료로 활용하면 중세국어 청자높임법에 대한 인식의 폭은 한층 넓어질 것이다.

여기서 추가로 살필 자료는 16세기의 순천김씨 묘에서 출토된 편지글이다. 『능엄경언해』, 『금강경언해』 등의 불경언해와 달리 편지글에는 일상의 언어가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특정인과의 감정 교류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동안 국어사 교육에서 그것의 의미를 적지 않게 평가(이승희, 2011)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출판된 교과서에서는 『이응태 묘 출토 간찰』이 활용되었을 뿐이다. 이 자료는 앞서 설명한 정점이 있지만 남편에 대한 자신의 일방적인 말씨만이 반영된 단 1편이 글이라는 점에서 『순천김씨 묘 출토 간찰』과 비교되는 면이 없지 않다. 순천 김씨가 사는 동안 남편, 딸, 친정어머니, 올케 등의 다양한 관계에서 받았던 192편의 편지글인 만큼 이들에게 다양한 청자높임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점들을 다음 예로써 확인해 보기로 하자.

(11) 『순천김씨 묘 출토 간찰』: ‘너’체

아이고 설운다 즐겨 가는가 므스 일로 가논고 삼십 저너 부모 동싱 니버튼므스 일고 아이고 그립거든 엇디려뇨 보고져커든 엇디려뇨 오고져커든 엇디려뇨 동서남브글 스방을 도라보리 뉘 내의 정 알리 이실고 헤아리거든 술〃설워흐뇌//...다터로 헤다니 승각흐니 가슴 둘 덕 업다 이듬에 어엿브고 익딕흐니 쁘디로니 부모는 보내시고 그 안히 엇디 흐시뇌 ... 다시곰 가놓다. 도히 잇거샤 볼 나리 언제어뇨 내의 므슴대로 묻 상면될가 술〃설워흐노라 다시곰 도히 겨오 다시 보자 을묘 구월 순육이레 니별흐놀다.

[현대어 풀이]

아이고 서럽구나. 즐겁게 가는가? 무슨 일로 가는가? 삼십 이전에

동생과 이별하니 (이) 무슨 일이고, 아이고 그리우면 어떻게 할까?
 보고프면 어찌할까? 오고자 하면 어찌 할까?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
 보아도 누가 나의 이 마음을 알리 있을까 헤아려보니 슬슬 서러워지
 오. ... 여러 곳을 헤매더니 생각하니 마음 둘 데 없다. 이 중에 가엾고
 불확실한 사람 뜻이니 부모는 보내시고 그 마음이 어찌 하시리오. ...
 다시 가오. 잘 있어서 본 날이 언제이냐. 나의 마음대로 못 볼가 슬슬
 서러워하노라. 잘 있다가 다시 보자. 을묘년 9월 16일에 이별하오.

위의 발신인은 확실치 않다. 다만 순천 김씨에게 ‘ㄴ’체와 ‘ㅎ라’체를 사
 용한 점으로 미루어 김씨보다 상위자인 것으로 짐작된다. 여하튼 밑줄 친 부
 분에서 확인되는 ‘ㄴ(느)’체는 15세기 ‘ㅎ야씨’체를 대신하여 16세기부터 사
 용된 종결어미로 현대국어의 ‘하게’체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료는 중세국어 시기 안에서도 15세기와 16세기의 언어가 다름을 깨닫
 게 할 수 있는 한편, 변화 과정에는 과도기가 수반됨을 인식하도록 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즉 ‘ㅎ야씨 > ㄴ’로 변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두 형식이 혼용
 되는 점(강조 부분과 밑줄 부분)에서 ‘언어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
 고 서서히 진행되면서 혼용되는 단계가 있음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변화 과
 정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더하여 당시
 에도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동일 대상에게 ‘ㅎ라(해라)’체와 ‘ㄴ(하게)’체를
 혼용하였음을 알려준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자료로 평가된다. 이러한 혼용
 이 높임법의 고유한 특징일 수 있음을 추정해 주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까닭이다.

지금까지 살핀 자료를 총괄하면 중세국어 청자높임법의 모든 형식(ㅎ쇼
 서, ㅎ야씨, 니, ㄴ)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교과서 구성
 의 특성상, 이들 모두를 자료로 활용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기서 소개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본고의 목적이 국어사 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료 탐색’에 있으므로 연구자가 그동안 ‘중세국어 강독’을 가르치면서 얻은 자료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려는 것이다. 둘째 위의 자료에서도 중세국어의 표기법, 음운 현상, 의미 변화 등이 전부 확인되므로, 기왕이면 특정 언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여타의 변화까지 깨닫게 되는 편이 효율적인 교육 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에 서이다. 여기에 입각점을 두고서, 중세국어의 ‘흐라, 햐썰, 햐쇼셔’체와 현대 국어의 ‘해라, 하게, 하십시오’체와의 비교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앞서 살핀 (9)의 장면만을 활용하면 될 터이고, 이 외에 중세국어의 ‘니’체와 ‘느’체 사용 양상까지를 학습자에게 알리고자 한다면 본문이 아닌 ‘활동’의 자료로 썬 (10)과 (11)을 활용하면 될 듯하다.

3) 『번역 노걸대 상』

『번역 노걸대』와 『번역박통사』는 중세국어의 문헌들과 달리 대화체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교과서의 자료로 간혹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연구자는 [-상위자]에게 사용했던 중세국어 의문형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세국어는 ‘-ㄴ다, -ㄴ가, 명사+가(고), -오, -아(어), -냐 (녀·뇨·료)’ 등으로 다양했지만 현대국어에 와서 ‘-냐/ -니’로 축소된바,¹¹⁾ 언어의 변화적 속성을 깨닫기에 충분한 문법 현상으로 간주되는데, 『번역 노걸대』의 다음 장면에는 중세국어의 이러한 의문 형식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¹²⁾

11) ‘명사+가, -ㄴ다’는 16세기에 소멸되었고, ‘-ㄴ가, -오’는 ‘-하게, 하오체’의 의문형으로 상승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국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양영희, 2009ㄴ).

12) 비상에 소개된 『번역 노걸대 하』의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는 ‘ㄴ/ㄴ다’의 의문형만이 확인된다.

네 이 ㅁ를 ㄷ흐니 사오나오니 크니 ㅈ그니 모도와 언매나 갑슬 받고져 흐ㄴ다 하나콧 갑슬 니르라 대되 一百四十兩銀을 바도리라 네 이리콧 갑슬 닐어 므슴홀다

위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방점을 찍지 않고 띄어쓰기를 하여 인용한바, 밑줄친 부분에서

(12) 『번역 노걸대 상』

(1) 유형 1

·큰형·님·네·어·드·러·로셔브·터·온·다·내·高麗 王京·으·로셔브·터·
 오·라·이·제·어·드·러·가·논·다·내·北京·:항·ㅎ·야·가노·라·네·
 언·제 王京·의·셔·떠난·다·내·이·ㄷㄹ 초흐룻·날 王京·의·셔·떠·나·
 라·이·미·이·ㄷㄹ 초흐룻날 王京·의·셔·떠·나·거니·이·제·반·득·리로
 덕·엇·디·앗가·사·오·노·내·흔·버디·떠·디·여·올·식·내·길조·차·날
 회·여·너·기·들·워·오·노·라·오·미·더·되요·라·그·버·디·이·제·
 미·쳐·올·가·몹·올·가·이·버·디·곧·괴·니·어·재·긋·오·다·네·이·ㄷㄹ
 ·그·몹·씩 北京의 갈·가·가·디·몹·홀·가……네·스승·이·엇던·사·름·고
 ·이 漢人·이라… 네·모·든·선·빅·둥·에·언·메나 漢兒人·이며·언·메나 高
 麗人·사·름·고 漢兒와 高麗·반·이·라·그·둥·에·글·외·느·니·잇·느·녀

(2) 유형 2

- A: ·큰형·님·네·어·드·러·로셔브·터·온·다
 B: ·내 高麗 王京·으·로셔브·터·오·라
 A: ·이·제·어·드·러·가·논·다
 B: ·내 北京·:항·ㅎ·야·가노·라
 A: ·네·언·제 王京·의·셔·떠난·다
 B: ·내·이·ㄷㄹ 초흐룻·날 王京·의·셔·떠·나·라
 A: 이·미·이·ㄷㄹ 초흐룻날 王京·의·셔·떠·나·거니·이·제·반·득·리로
 덕·엇·디·앗가·사·오·노
 B: ·내·흔·버디·떠·디·여·올·식·내·길조·차·날·회
 여·너·기·들·워·오·노·라·오·미·더·되요·라
 A: 그·버·디·이·제·미·쳐·올·가·몹·올·가
 B: ·이·버·디·곧·괴·니·어·재·긋·오·다

[-상위자]에 대한 의문형이 확인된다.

A: 네 ·이 ·ㄷ·그·몐·씩 北京의 갈·가가·디 :몐 홀·가……

B: 네 스승·이 :엇던 사·름·고

A: ·이 漢人이·라…

B: 네 모·든 셴·빅 둥·에 :언·메나 漢兒人이며 :언·메나 高麗人 사·름·고

A: 漢兒와 高麗 :반·이·라

B: 그 둥·에 굴·외늑·니잇늑·녀

[현대어 풀이]

큰 형님 어디에서 왔냐? 나는 고려 왕경에서 왔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 나는 북경으로 간다. 너는 언제 왕경에서 떠났(출발했)느냐? 나는 이 달 초하루에 왕경에서 떠났다. 왕경에서 떠난 지 보름이 되었는데 어찌 이제야 왔느냐? 내 친구가 뒤쳐져 오니 나도 천천히 기다리면서 오느라고 늦었다. 그 친구가 오겠는가, 오지 않겠는가? 이 친구가 곧 그이니 어제 막 왔다…… 네 스승이 누구인가? 중국인이라… 네 셴비 중에 중국인이 몇이며 고려인이 몇이나? 중국인과 고려인이 반이라 그 중에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 있느냐?

위 장면은 고려 상인들과 중국 상인들이 만나 서로 인사하면서 북경까지 함께 가기로 하고 중국 상인이 고려 상인에게 그의 중국어 스승이 누구인지 등을 묻고 답하는 대화이다. (유형 1)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유형 2)는 연구자가 임의로 대화 단위를 구별한 것이다. 전자는 원본의 충실성을 고려한 전개이고¹³⁾ 후자는 학습자의 이해 수월성을 고려한 편

13) 사실 『번역 노걸대』 원본은 다음과 같이 중국어가 병기되어 있다. 그러나 국어사 교육의 초점은 중세국어에 대한 이해인 점을 고려하여 생략하였지만 여기서 짧게 그 구성 방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大·다·따 哥·거거 ○·큰형·님 你니·니 從·충 中 那나·나 裏·리:리○:네어·드·러·셔브·터온·다

즉 중국어 大哥你從那裏를 현실음과 실제음을 병기하고 이에 대한 뜻을 ○ 표기하였다.

집이다. 어쨌든 위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상위자]에 대한 의문형은 다음과 같다.

(13) 중세국어 [-상위자]의 의문형

가. 명사+가(고): 高麗人 :사·름·고

나. ㄴ(ㄷ)다: 온·다·가·느·다

다. -ㄴ(ㄷ)가/고:갈·가·가·디·묻·홀·가·……

라. -뇨(려): 앓·가·사·오·뇨·글·외·느·니·잇·느·냐

현 국어사 교육의 목표를 참조할 때, 이들의 문법 기능이나 사용 조건들을 일일이 학습할 이유는 없겠지만 중세국어에 사용된 의문형을 파악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 현대국어와 비교가 가능한 까닭이다. 그런데 위의 한 장면에 모든 기능들이 망라되어 있어 의문법 변화를 살피는 자료로서는 높게 평가된다. 『번역 노걸대』 가운데에서도 위의 장면이 다양한 의문형을 가장 많이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더하여 근대국어 시기에 다시 언해진 『노걸대 언해』가 있어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학습활동을 통해 변화 양상을 탐구하도록 하면 언어의 변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III. 맺음말

본 논의는 중세국어 자료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5 교육과정」에서 국어사 교육의 목표를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를 깨달음으로써 ‘변화하는 언어’의 속성을 이해하도록 설정하였는데, 이때의 매개가 ‘중세국어 자료’인바 자료 선택은 국어사 교육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방향타로 작용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휘 변화의 탐구를 위해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용자례’를 선택하였다. 거기에는 고유어가 92개 정도 예시되어 있어서 어휘의 형태와 의미 변화는 물론이고 표기와 음운 변화, 조어법의 변화까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럼으로써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하였다. 청자 높임법 변화의 탐구를 위해서는 『석보상절 6』, 『월인석보 1』, 『순천김씨 묘 출토 간찰』의 특정 장면을 선택하였다. 전자의 두 자료는 짧은 장면 안에서 ‘흐쇼셔, 흐야썌, 흐라, 니’체의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여서 학습자들의 흥미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후자 역시 선인들의 사연을 읽을 수 있는 편지글이라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15세기 ‘흐야썌’체의 계승형으로 간주되는 16세기의 ‘니’체를 확인함으로써 중세국어라는 동일시대에도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의문법 변화의 탐구는 『변역 노걸대 상』의 첫 장면을 선택하였다. 전체 텍스트가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세국어 다른 자료와 비교되면서 이 역시 짧은 장면 안에서 [-상위자]에 대한 의문형인 ‘ㄴ다, 명사+가(고), ㄴ가(고), 뇨(료, 려)’ 등을 확인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이다.

본고에서 관심을 둔 교육 내용과 자료가 최선의 선택일 수만은 없다. 다만 현재 「국어」, 「언어의 매체」에서 공히 중세국어 자료 제시에 방점을 두는 만큼 그것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역할은 우리 연구자들의 몫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논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 청자높임법, 의문법을 탐구하기에 적절한 자료만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본 논의를 기점으로 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국어사 교육에 적절한 ‘자료 탐색’을 진행하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20. 10. 25. 투고되었으며, 2020. 11. 16. 심사가 시작되어 2020. 12. 10.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고영근(2020),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서울: 집문당
- 고형진·김찬기·김유범·민준홍·신현암·고영호·김부연·김영은(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동아출판사.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 구본관·박재연·이선웅(2016), 『한국어 문법 총론Ⅱ』, 서울: 집문당.
- 김유범(2006), 「중세국어 문법교육과 이해본 삼강행실도」, 『새얼어문논집』 18, 185-211.
- 김유범(2007),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텍스트에 나타난 문법적 특징의 활용 가치 분석(1)」, 『민족어문논총』 37, 465-489.
- 김유범(2013), 「중세국어 교육 내용의 선정」, 『국어사연구』 16, 7-33.
- 류수열·송경석·박건호·권순정·김효정·임호원·김소현·김지상·강문식·강지영·김용현(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금성출판사.
- 민현식·신명선·오현아·이지은·안장호·조진수·박진희(2018), 『언어와 매체』, 서울: 천재교육.
- 민현식·유성호·이은희·민병곤·홍근희·김혜정·박기범·박재현·서명희·김철희·김형수·이지은·장글(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좋은책 신사고.
- 박안수·임송본·안병만·이남희·강정환·강호영·김중수·신승은·이규연·이석중·이성수·이영발(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비상교육.
- 박영목·정호웅·천경록·양기식·전은주·조선희·김수학·박의용·서우중·이세영·이혜진·하고운(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천재교육.
- 박영민·박형우·김기열·김영민·김지영·박경희·정미경·조성만(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비상교육.
- 방민호·안효경·신서인·오현숙·이용광·김태경(2018), 『언어와 매체』, 서울: 미래엔.
- 신유식·이필규·박종석·전경원·전여경·윤인희·이호승(2018), 『국어』, 서울: 미래엔.
- 양영희(2009ㄱ), 「청자존대 높임법의 등급의 분화 과정 고찰」, 『한글』 286, 5-36.
- 양영희(2009ㄴ), 「하라체 의문형 종결어미의 변천 양상」, 『언어와 언어학』 46, 117-138.
- 양영희(2020), 「국어사 교육의 변화에 따른 교육 내용 설계」, 『국어교육』 170, 273-299.
- 이관규·박경희·신호철·신희성·이동석·정지현·하성욱(2018), 『언어와 매체』, 서울: 비상.
- 이규범(2019),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국어사 교육 내용과 자료 분석」, 『한말연구』 51, 161-184.
- 이삼형·김창원·양정호·안혁·하동원·박찬용(2018), 『언어와 매체』, 서울: 지학사.
- 이삼형·김창원·정재찬·최홍원·간호익·조형주·안혁·남궁민(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지학사.
- 이성영·염은열·김태석·김유미·남가영·김에스더(2018), 『국어』, 서울: 천재교육.
- 이승희(2011), 「조선시대 한글 편지를 활용한 국어사 교육」, 『정신문화연구』 2, 219-246.
- 이승희(2012),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국어사 단위 연구」, 『국어교육』 138, 147-168.

정민·노철·강석준·권택경·김민혁·김형진·김형태·나종입·문성후·박경원·박기려·박길
 제·박두일·박영수·박정준·박현진·서형오·신흥규·오금희·우보영·유미·이봉형·이
 찬교·장소연·정호식·한성찬·현중권(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해냄에듀.
 최형용·강영준·권태윤·박재연·박종오·소신애·송찬욱·오세호·임요한(2018), 『언어와 매
 체』, 서울: 창비.

국어사 교육을 위한 중세국어 자료 탐색

양영희

본 논의는 중세국어 자료 개발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2015 교육과정」에서 국어사 교육의 목표를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를 깨달음으로써 ‘변화하는 언어’의 속성을 이해하도록 설정하였는데, 이때의 매개가 ‘중세국어 자료’인바 자료 선택은 국어사 교육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이다.

어휘 변화의 탐구를 위해서는 「훈민정음해례본」의 ‘용자례’를 선택하였다. 여기서는 어휘의 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가운데 음운, 표기 변화 등도 아울러 이해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이다. 청자 높임법 변화의 탐구를 위해서는 「석보상절」, 「월인석보」, 「순천김씨 묘 출토 간찰」의 특정 장면을 선택하였다. 「석보상절」, 「월인석보」는 짧은 장면 안에서 ‘흐쇼셔, 흐야쑤, 흐라, 니’체의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텍스트여서 학습자들의 흥미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순천김씨 묘 출토 간찰」은 선인들의 사연을 읽을 수 있는 편지글이라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15세기 ‘흐야쑤’체의 계승형으로 간주되는 16세기의 ‘니’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마지막으로 의문법 변화의 탐구는 「번역 노걸대 상」의 첫 장면을 선택하였다. 전체 텍스트가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세국어 다른 자료와 차이를 보이면서 이 역시 짧은 장면 안에서 [-상위자]에 대한 의문형인 ‘ㄴ다, 명사+가(고), ㄴ가(고), 뇨(료, 려)’ 등을 확인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핵심어 국어사 교육, 국어사 자료, 「2015 교육과정」, 『석보상절』, 『월인석보』, 『순천김씨 묘 출토 간찰』, 언어의 역사성

An Educational Perspective to Medieval Korean Materials for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Yang Younghe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medieval Korean materials. In the “2015 Korean education Curriculum,” the goal of Korean language history education was set to understand the nature of “changing language” by realizing the differences between medieval and modern Korean. It was judged that the selection of “medieval language materials” was important to the succes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explore the vocabulary change, “*Hunminjeongeum*” “*Examples on the Use of Letters*” was selected. Analysis is expected to enable changes in the form and meaning of vocabulary to be grasped, and changes in phonology and notation can be understood. To explore the change of hearer honorific expressions, specific scenes of “*Seokboangjeol*,” “*Wolin-seokbo*,” and “*Letters on the excavation of Suncheon Kim’s grave*” were selected. This is because declarative, interrogative, and imperative forms of “*ᄃ쇼셔*, *ᄃ야씨*, *ᄃ라*, *니*” are used throughout the short texts of “*Seokboangjeol*” and “*Wolin-seokbo*,” which are story texts with a plot with which learners can gain interest and empathy.

“*Letters of Suncheon Kim’s grave excavation*” contain stories related to the ancestors, so learners can gain empathy through the text. In addition, “*ㄴ*” of the 16th century, which is considered as a succession form of the “*ᄃ야씨*” of the 15th century, can be found in the text. Lastly, the first scene of “*Byeonyeok-Nogelda*” was chosen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interrogative forms. It is considered different from other medieval materials as the whole text is composed of dialogues, and interrogative forms of (-Upper), “-nda, noun+ga(go), -nga(go), nyo(ryo, ryeo),”

are also used in short scenes.

KEYWORDS Korean Language History Education, Korean Language History Materials, 2015 Korean Education Curriculum, *Seokboangjeol*, *Wolin-seokbo*, *Letters of Suncheon Kim's grave excavation*, Historicity of Language